

# 2012 년 기술 트렌드

by Sungmoon Choon January 4, 20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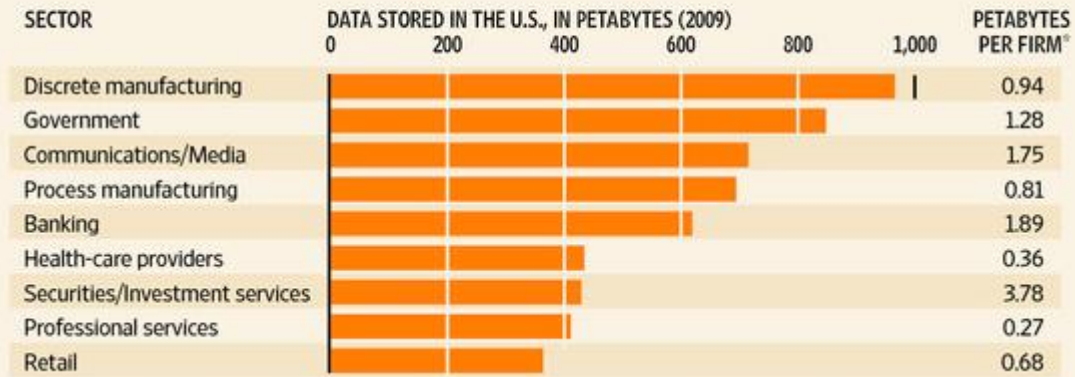
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. “**2012 년에 실리콘밸리에서 무엇이 트렌드가 될까요?**” 질문을 받고 난감했다. 매일 새로운 회사들이 나타나고, 스타트업들이 투자받고, 기존 회사들이 죽는 마당에 어떻게 2012 년 한 해에 소위 ‘똥’ 트렌드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생각을 쥐어짜봤다. 지금 뜨는 기술은 무엇이고, 무엇이 새 해에 주목을 받게 될까?

## 1. Big Data: 대량의 데이터 분석과 가공

똑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회사는 넷플릭스와 아마존이다. 데이터 처리 자체가 새로운 것은 없지만, 지금은 데이터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쌓이고 있고, 이런 **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어느 때보다도 저렴해졌다**. 그 결과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, 또는 생각은 했어도 비싸서 시도조차 못했던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. 우리가 매일 매일 공짜로 쓰는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 – 구글 서비스들, 카카오톡, 에버노트, ... – **이들은 공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**.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나오는 정보를 회사에 팔고 있기 때문이다. 이런 데이터가 시간에 걸쳐 쌓이면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. 기존에는 IBM, 오라클(Oracle), 테라바이트(Terabyte) 등의 비싼 서비스를 이용해야했기 때문에 저장하고 처리하는데 너무 큰 비용이 들어 파일 더미에 불과했던 데이터가 이제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미 있는 정보가 된 것이다. 이 주변에 새로운 기술과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. 회사가 가진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 **오페라 솔루션즈(Opera Solutions)**는 얼마 전에 \$84M (약 900 억원) 의 투자를 받았고, 또 다른 분석(analytics) 회사 **뮤 시그마(Mu Sigma)**는 지난 12 월 28 일, \$108M (약 1200 억원)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. 또 얼마 전에 HP 는 데이터 분석 회사인 **Autonomy** 를 무려 \$11B (약 12 조원)에 인수했다. 아래는 오늘 (1 월 4 일)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던 기사, [So, What's Your Algorithm?](#)에 나온 그래프이다. 각 인더스트리별로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.

## Big Data

As the amount of data used by businesses grows, there are new opportunities for analyzing it, which stands to change how we make day-to-day business decisions. One petabyte is equivalent to 1 million gigabytes. A large iPod has capacity of 160 gigabytes.



출처: So, What's Your Algorithm? (Wall Street Journal, 2012 년 1 월 4 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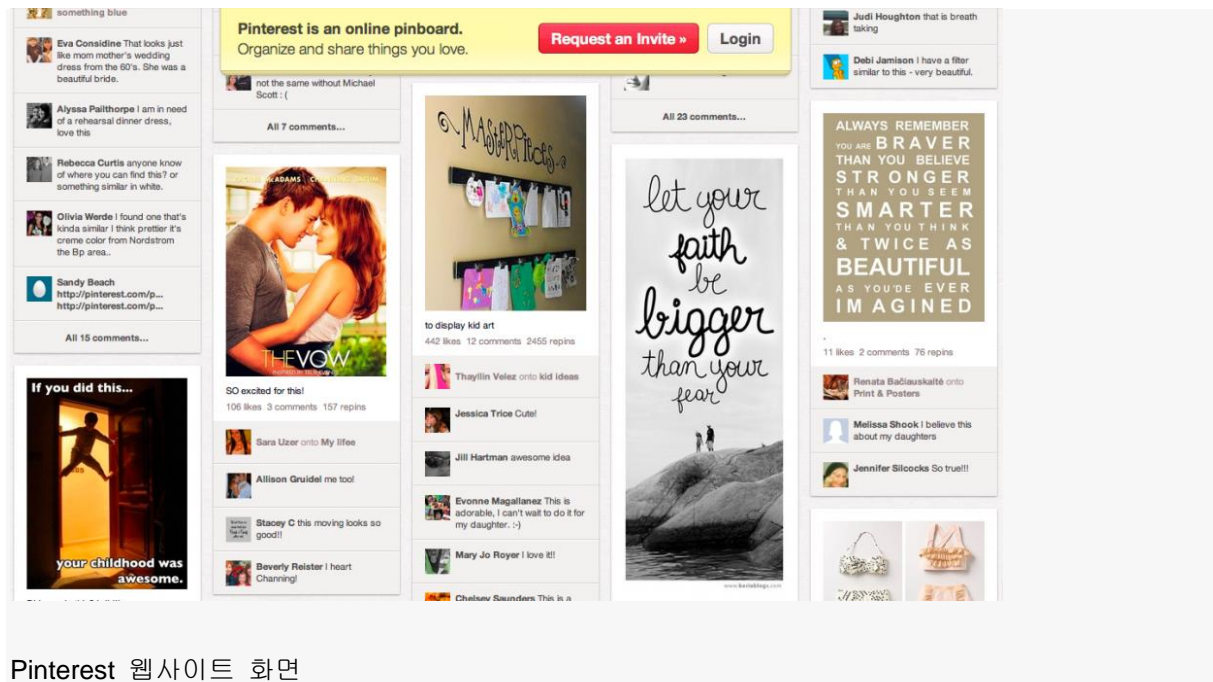
이러한 배경에는 **하둡(Hadoop)** ([공식 페이지](#), [위키피디아](#)) 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기술이 있다.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공하는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다. 여기서 말하는 ‘대용량’은 페타바이트 이상을 말한다. 1 페타바이트는 10의 15승 바이트, 즉 100만 기가 바이트이다. 1 기가바이트당 영화 한 편이라고 잡으면 100만개의 영화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다. 하둡은 원래 구글이 대용량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한 **구글 파일 시스템(GFS)** 논문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기술이다. 구글, 야후, 페이스북, 아마존, AOL, 바이두를 비롯한 많은 회사들이 이 기술을 채택했고[주], 지난 11월에는 하둡 기술을 전파하고 서비스하는 회사 **Cloudera**가 \$40M (약 440억원)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.

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(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, HDFS)을 이용하는 회사 중 가장 큰 데이터를 가진 곳은 페이스북이다. 지난 7월, **페이스북은 30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**. 그 속도라면 지금은 50 페타바이트쯤 되지 않았을까 싶다.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데이터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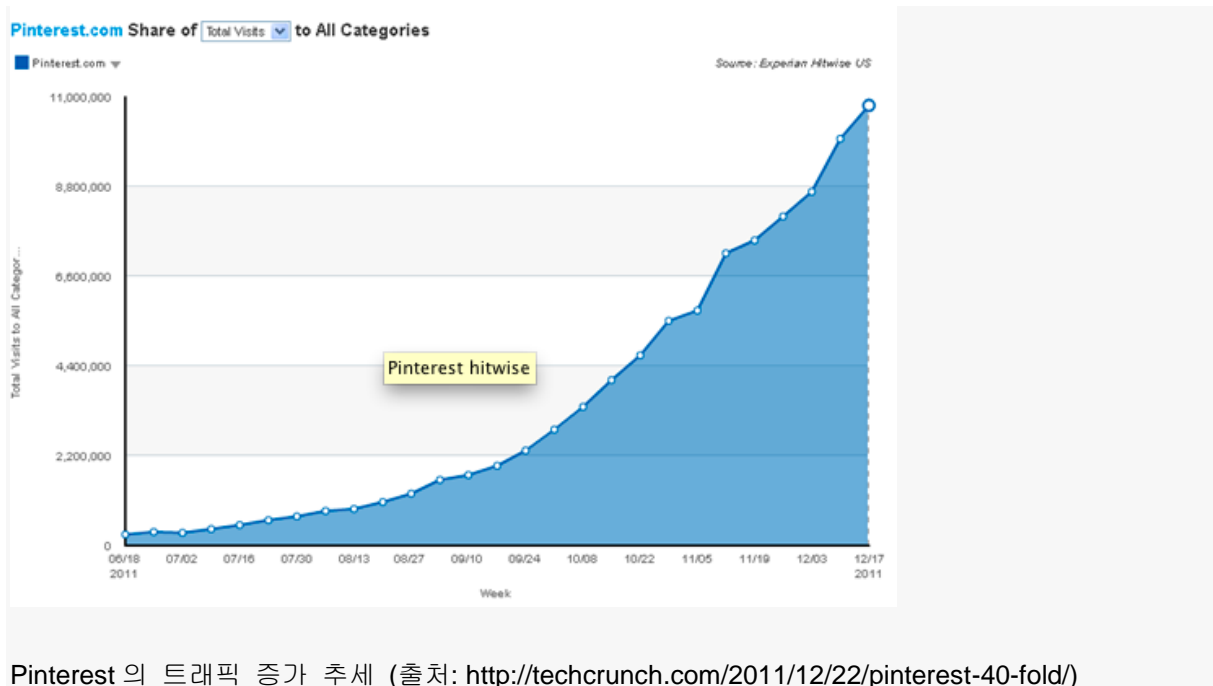
‘소셜 크레딧 스코어’를 매겨주는 **Klout**은 또 하나의 예이다. 약 1억개의 공개된 트위터, 페이스북 프로필 데이터를 모아서 이를 기반으로 ‘소셜 명성 점수’를 매겨주는 재미있는 아이템을 가진 이 회사는 어제 클라이너 퍼킨스로부터 \$30M(약 330억원)을 투자받았다고 발표했다.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위에서 활동하고,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데이터를 흘리고(?) 다니게 되면서, 이런 데이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. 웹과 모바일 앱 등을 통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한 회사들이, 그 데이터를 더 빠르게,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이를 돈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.

## 2. 대중의 두뇌를 활용한 서비스들

‘대용량 데이터’와 연관 있는 주제인데, 역시 새로운 것은 없는 분야지만 이 분야에서 재미있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, 2012 년엔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. 사람들이 웹에서 찾은 관심있는 아이템을 뭐든지 모아 보관하는 [Pinterest](#) 는 대표적인 예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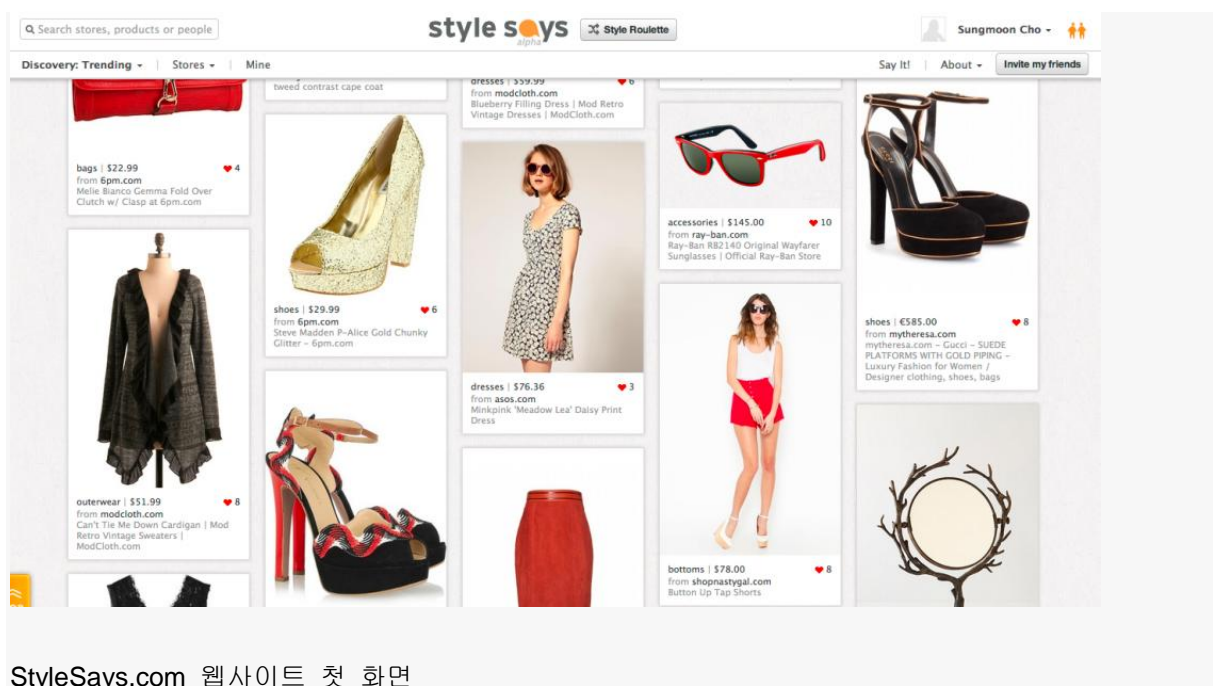
2011 년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 중 하나인 Pinterest 의 트래픽은 지난 6 개월 동안 무려 40 배가 증가했다. 아래를 보자.



Pinterest 의 트래픽 증가 추세 (출처: <http://techcrunch.com/2011/12/22/pinterest-40-fold/>)

Pinterest 는 ‘비주얼 트위터 (Visual Twitter)’라고 보면 될 것 같다. 관심 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– 그것이 디자이너 구두이든, 멋진 사진이든, 귀여운 강아지이든 –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고, 사람들은 리트윗(Retweet)과 비슷하게 리핀(Repin)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. 물론 лай크(Like) 하거나 댓글도 달 수 있다. 리핀이 많이 될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는 증거이다. Pinterest 가 대규모 광고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 글이 지난 11 월 TechCrunch 에 실렸는데,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볼만하다.

비슷한 컨셉의 회사로 [StyleSays](#) 가 있다. 스탠포드 석사과정 1 학년 학생 두 명에서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사이트인데 이제 제법 모양새를 갖추었다. 이 곳에는 사람들이 패션 아이템만 올린다는 점이 다르다.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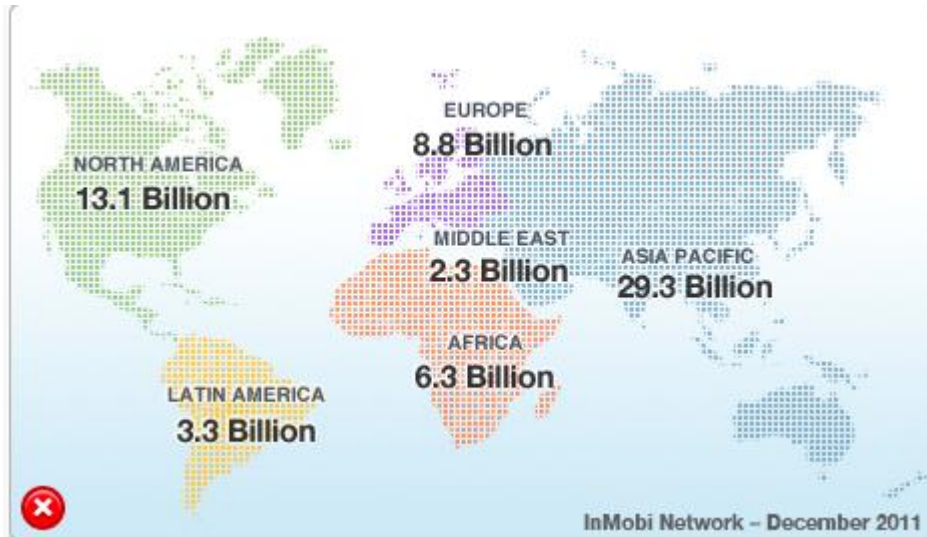
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[스타일쉐어 \(StyleShare\)](#)도 같은 류로 보면 될 것 같다. 어쨌든, 대중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의 지혜를 통해 거른 정보가 그 어떤 정교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만들어낸 정보보다도 더 가치있다는 점에서 이런 서비스들은 매우 주목이 되고, 2012 년엔 더 많이 생겨날 것이다.

### 3. 모바일 광고

2012 년엔 모바일 광고가 더 정교해질 것이고, 이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다. 단순히 웹서핑을 하거나 앱을 사용하는 동안 화면 한 구석을 차지하거나, 화면 전환시에 전체화면을 차지하는 광고만이 아니다.

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[Naveen Tewari](#) 가 인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모바일 광고 회사 [InMobi](#) 의 성장이 주목할만하다. 이 회사는 작년 9 월에 소프트뱅크로부터 무려

\$200M(약 2200 억원)의 투자를 받았다. 구글에 인수된 AdMob 만큼 크지는 않지만, 이 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광고는 165 개국 3 억 4 천명에게 도달한다고 한다. 위치 정보를 비롯해서, 사용자에게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과 타블렛은 광고주에게 정말 매력적인 플랫폼이다.



InMobi 의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 (출처: <http://www.inmobi.com/>)

어떤 형태의 모바일 광고가 2012 년에 사람들의 인기를 끌 지는 알 수 없지만, 이 분야에서 계속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더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돈이 흘러들어간다는 생각은 든다.

이상이 간략히 정리한, 문득 떠오른 2012 년의 트렌드이다. 2012 년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탄생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지 매우 기대가 된다.